

〈춘향전〉의 공간활용과 서사적 기능

신효경*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공간의 양상과 활용
- III. 서사적 기능
- IV. 공간활용을 통해 본 문학사적 의의
- V. 결론

【국문초록】

소설에서 공간은 미학의 중요한 영역으로 상징적이고 심미적인 의미를 지니며 인간의 삶을 의미있는 것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춘향전〉은 여성이 지녀야 할 정조나 절개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며 공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사건은 각기 다른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향전〉에 나타난 공간의 양상과 활용이다. 〈춘향전〉은 사건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나타난다. 고귀한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회원 공간은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한 예비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결연 공간은 단오라는 민속을 통해 절개를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사건 발단의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애정 공간은 두 주인공의 사랑과 이별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성을 가지며 사건 전개の本격적인 역할로 접어드는 전환적 기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련 공간은 절개와 충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가지며 기생의 절개를 충절로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춘향전〉의 서사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춘향전〉은 공간을 통해 천민인 기생에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게 천상의 신분과 고귀함을 부여해 신분 상승의 당위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불의한 지배층의 행태에 열(烈)이라는 윤리 도덕을 앞세워 부패한 사회에 저항하는 민중의식을 대변하였다.

셋째, 공간활용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조망해보았다. <춘향전>은 기생을 통해 가부장제 안에서 억눌렸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과감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관심 받지 못했던 기생의 죽음을 충절로 승화시켜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다.

주제어: <춘향전>, 논개, 판소리계 소설, 기생, 절개, 단오

I. 서론

일반적으로 공간은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뜻하거나 삶의 공간을 채워가는 영역을 이른다. 하지만 공간이 소설이라는 장르에 자리 잡게 되면 소설 미학의 중요한 영역으로¹⁾ 상징적이고 심미적인²⁾ 의미를 지닌다. 즉 소설에서 공간은 인간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고양시키는 인식의 대상이 된다.³⁾ 따라서 소설의 공간은 사물이 존재하는 정적 공간이 아닌 변화무상하게 의미를 찾아가는 사유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춘향전>의 공간은 변화무상하다. 크게 기사치성의 희원(希願) 공간, 절개를 함축한 결연(結緣) 공간, 인간의 감정과 본능이 극대화된 애정 공

1) 현길언, 「운명적 공간과 선택적 공간」, 『한국언어문학』 제1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p.323.

2) 신태수, 「고소설의 공간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28집, 한민족어문학회, 1995, p.215.

3)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pp.22-23.

간, 절개의 고귀함이 빛나는 시련 공간으로 변하면서 내면의 상징적인 의미를 공간을 통해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춘향전>의 전반부는 신분을 초월한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춘향이 지키려는 절개를 중심으로 그녀가 겪는 고난과 부패한 관리의 탐욕을 대비시켜 사회를 비판하는 민중의식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춘향전>의 각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건은 절개와 인간의 자유와 가치라는 주제로 집약된다.

<춘향전>은 그동안 인물 연구를 비롯하여⁴⁾ 수용 양상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었다.⁵⁾ 또한 작품의 비교연구⁶⁾, 번역 양상⁷⁾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춘향전>의 공간에 관심을 가진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현화는 <춘향전>의 공간이 해원(解願)공간과 반속적(反俗的) 공간성의 문예적 특질을 선사한다고 논하였다. 해원공간은 외연적으로 청유와 거절의 연쇄구조를, 내포적으로 주정적(主情的) 세계와 제도적(制度的) 세계의 갈등 구조를 취하는 이중구조

-
- 4) 장순희,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한국문학논총』 제55집, 한국문학회, 2010; 최재우, 「보조인물의 성격으로 본 ‘춘향전’ 이본 간의 특성 차이: <남원고사>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3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1.
 - 5) 서보영, 「영화 <춘향전>의 <춘향전> 수용 양상과 이본으로서의 특징」, 『문학치료연구』 제45집, 문학치료학회, 2017; 정유정, 「대중가요 음반 속 <춘향전>의 수용과 변개 양상」, 『국문학연구』 제34집, 국문학회, 2016; 박상란, 「21세기 <춘향전> 수용의 양상과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26집, 우리어문학회, 2006.
 - 6) 이걸, 「<춘향전>과 <서상가>의 비교연구」, 『돈암어문학』 제30집, 돈암어문학회, 2016; 성아사, 「세책 <춘향전>과 <춘향전>의 공시적 비교연구」, 『열상고전연구』 제3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 7) 전상욱, 「<춘향전> 외연의 한 양상: 한문본 <春香新說> 및 일본어본 <鶴林情話春香傳>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3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1; 이상현, 「<춘향전> 소설어의 재편과정과 번역: 게일 <춘향전> 영역본(1917)출현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30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로 해석하였다. 또한 반속적 공간성은 자성(自省)과 복원(復元)의 동화적(同和的) 인물 실현의 문예적 특질로 보았다. 나아가 <춘향전>의 다양한 공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우위에 두고 인습과 제도에 묶이지 않으려는 개성적 자아가 자리하고 있으며, 수직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 소통 방식을 꾀하고자 했던 당대인의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⁸⁾

신태수는 <춘향전>의 공간 유형을 감정 이입의 공간, 감정 약화의 공간, 감정 배제의 공간으로 구분 짓고, 공간 유형에 따라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가 달라지는 점을 밝혔다. 감정 이입의 공간에서는 독자가 인물을 통해 정보를 얻어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폭이 아주 좁고, 감정 배제의 공간에서는 독자가 인물뿐만 아니라 서술자를 통해 정보를 얻어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폭이 아주 넓으며, 감정 약화의 공간에서는 독자가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두 유형의 중간쯤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인은 서술자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술자가 인물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⁹⁾

손동국은 <열녀춘향수절가>의 사랑가와 이별가 대목을 중심으로 공간적 서사 양상을 살폈다. <열녀춘향수절가>의 공간은 극중 인물이나 독자의 내면의식 속에 형성되는 일종의 심리적인 공간으로 사랑가에서 이별가로 이어지는 대목을 작품 전체에서 공간적 국면이 두드러지는 구간 중 하나로 보았다. 이 두 대목은 서사 단계의 지나친 축약으로 인해 춘향과 몽룡의 감정을 충분히 독자에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를 사랑가 대목의 공간 안에서는 두 사람이 갖는 사랑의 서사적인 개연성이나 정당성보다는 사랑의 감정이 부풀어지는 그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기

8) 김현화, 「고전소설 공간성의 문예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12, pp.242-263.

9) 신태수, 「고소설의 공간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28집, 한민족어문학회, 1995, pp.229-230.

때문이며, 이별가의 공간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이별에 대한 서사적 인과성보다는 춘향의 서러운 감정이 장면화를 통해 한껏 부풀려져 독자가 그 설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랑과 이별의 감정의 지속성을 위한 의도로 해석하였다.¹⁰⁾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춘향전>의 공간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되고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상의 논의를 확대하여 <춘향전>이 갖는 공간의 의미가 비교적 잘 나타나 있고, 춘향이 이상적인 인물로 형상화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¹¹⁾ 공간의 양상과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완판 84장본은 <춘향전> 전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각각의 공간과 절개가 갖는 상징성을 조명해 봄으로써 <춘향전>이 드러내고 싶었던 궁극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공간의 양상과 활용

<춘향전>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비롯하여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하지만 그 이

10) 손동국, 「공간적 서사로서의 <열녀춘향수절가> 읽기」, 『한국고전연구』 제3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pp.254-270.

11) <춘향전>은 이본이 120여 종이 된다. 완판 84장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본은 춘향이 기생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몽룡의 부름에 흔쾌히 응하고 있다. 완판 84장본은 춘향의 기생 이미지를 지워버리고 이상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기 위해 새로 첨가된 화소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춘향이 비천한 출신이 아닌 점을 강조하기 위해 춘향의 신분을 양반의 서녀로 설정하고 있으며, 월매의 태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도령과 춘향이 만나는 시점이 봄에서 단오로 바뀌었으며, 춘향과 이몽룡이 사려 깊은 인물로 변하였다(전상옥,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151-158).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결합해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공간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춘향전>의 공간 양상과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회원(希願)공간-고귀한 인물 탄생 암시

고전소설은 대몽을 통해 인물의 영웅성을 부각하거나 고귀함을 드러내 기도 하며 주인공이 앞으로 겪게 될 사건의 징조로 작용하거나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시하는 기능을 갖는다.¹²⁾ <춘향전>에서 성참판과 월매가 자식을 얻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공간은 회원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춘향이 현실에서는 기생의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회원 공간을 통해 춘향이 고귀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춘향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간접적 제시는 성참판과 월매가 치성을 드리러 가는 여정의 공간에서 시작된다.

이 날부터 목욕지계 정이 흐고 명산승지 차저갈 제 오적교에 썩 나서서 좌우산 천 둘러보니 서북의 교룡산은 술희방을 마거 있고 동으로난 장임습풀 김푼 고디 선원사는 은은이 보이고 남으로난 지리산이 웅장한디 그 가온디 요천슈 난 일디장강 벽파되야 동남으로 둘러스니 별류건곤 여기로다 청임을 더우잡고 산슈를 발바 들러가니 지리산이 여기로다 반야봉 올라서서 사면을 둘러보니 명산디천 완연하디 상봉의 단을 무어 제물을 진설하고 단하의 복지하야 천신 만고 비러더니 산신임의 덕이신지 잇씨는 오월 오일 갑자라¹³⁾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참판과 월매가 치성을 드리기 위해 향하는 여정의 회원 공간은 신선들이 산다는 별유건곤의 선경세계와 같은 이미지로 묘사된다. 마치 천상세계를 연상케 하는 광경은 웅장함과 신비함으로

12) 경일남, 『고전소설의 창작기법 연구』, 아세아 문화사, 2007, p.14.

13)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4, 박이정, 1997, p.300.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신비감은 한 생명의 잉태를 기원하는 신성한 공간으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집약된다. 희원 공간이 갖는 신성함은 바로 태몽으로 이어진다.

한 꿈을 어든니 서귀 반공하고 오치 영농하더니 일위선녀 청학을 타고 오난디 머리에 화관이요 몸의난 치의로다 월피 소리 징징하고 손의난 계화 일지를 들고 당의 오르며 거슈장읍하고 공순이 엇자오디 낙포의 팔일넌니 반도 진상 옥경 갖다 광한전의셔 격송자 맞나 미진 정회 호을 차의 시만하미 죄가 되야 상제 디로하사 진퇴의 니치시미 갈 바을 몰나더니 두유산 실영계셔 부인씩으로 지시 호기로 왓사오니 어엽비 여기소서 호며 품으로 달여들 시 학지고성은 장경고라 학의 소리 놀니 췌니 남가일몽이라¹⁴⁾

월매는 천상의 선녀가 하강해 자신의 집으로 오는 태몽을 꾸게 된다. 현실에서 춘향은 기생이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월매의 태몽을 통해 춘향은 평범한 인물이 아닌 고귀한 신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춘향이 선녀가 하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춘향의 탄생은 영웅소설 속 주인공의 출생담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¹⁵⁾

희원 공간에 나타난 춘향의 천상신분은 춘향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춘향의 절개를 형상화하기 위한 예비적 공간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의 활용은 신분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기생에게 천상의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춘향이 신분제도의 굴레를 벗어나 정렬부인의 반열에 오르는 데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겠다.

나아가 희원 공간에 나타난 ‘오월 오일 갑자’는 춘향과 몽룡이 만나는

14) 김진영 외, 앞의 책, p.300.

15) 신동훈, 「<춘향전> 주제의식의 역사전 변모양상」, 『판소리연구』 제8집, 판소리학회, 1997, p.240.

단옷날과 연결되면서 춘향의 절개를 암시하는 공간으로 이어진다. 즉 희원 공간은 기생인 월매의 태몽을 통해 앞으로 태어날 인물이 고귀한 인물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사건을 이끌어 가기 위한 예비 공간의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2. 결연(結緣)공간-절개의 상징적 기능

조선시대는 남녀유별이 엄격했던 만큼 여성의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단옷날은 여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그네를 타는 등 바깥출입이 자유로운 유일한 날이었다. <춘향전>은 단옷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춘향과 몽룡의 만남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춘향과 몽룡이 만나는 광한루의 풍경을 통해 두 사람의 결연이 기생과 양반 도령의 만남이 아닌 고귀한 만남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연 공간은 다른 공간과 달리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광한루의 배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단오라는 시간적 배경을 더해 춘향의 절개를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광한루 섬적 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경기가 장니 조타 적성 아침날의 느진 안기
 띄여 잇고 녹슈의 저문 봄은 화류동풍 돌너 잇다 자각달노분조회요 벽방금전
 싱영농은 임고디를 일너 잇고 요현기구하쳐외는 광한누을 일의미라 악양누
 고소디와 오초 동남슈는 동정호로 흘러지고 연지서북의 평택이 완전한디 또
 한 곳 브리보니 빅빅홍홍난만중의 잉무 공작 나라들고 산천경지 돌너보니 에
 구분 반송술 썩갈입은 아주 춘풍 못 이기어 혼들흔들 폭포유수 세니가의 계변
 화는 뽕긋뽕긋 낙낙장송 울울흐고 녹음방초승화시라¹⁶⁾

16) 김진영 외, 앞의 책, p.303.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몽룡이 광한루에 올라 바라본 풍경은 따뜻한 봄기운에 모든 것이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몽룡이 ‘고명오작션이요 광한옥계누’라¹⁷⁾ 할 만큼 광안루는 회원 공간과 같은 천상 세계를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묘사된다. 평화롭고 아늑한 광한루 공간은 춘향이 갖는 천상 신분을 환기시키는 공간이자 춘향의 고귀함을 드러내기 위한¹⁸⁾ 공간으로 춘향과 몽룡의 결연이 기생과 양반 도령의 결연이 아닌 고귀한 인물들의 결연임을 공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결연 공간은 시간적 배경인 단옷날을 통해 춘향의 절개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춘향전>의 여러 이본에는 춘향과 몽룡이 봄에 만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완판 84장본은 춘향과 몽룡이 단옷날에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모는 단오의 숨은 의미를 통해 춘향의 절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¹⁹⁾ 실제로 단오는 한국의 민속 중 하나로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다. 그중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으로 유명한 굴원의 고사에서 비롯된 설은 절개와 관련된다. 굴원은 초나라 사람으로 유배 중 초나라가 진나라에게 멸망하자 이를 듣고 분개하여 기원전 음력 5월 5일 62세를

17) 김진영 외, 앞의 책, p.304.

18) 설성경에 의하면 <춘향전>의 공간인 삼청동(三清洞)의 삼청과 광한루(廣寒樓)의 광한은 도교의 핵심공간인 인 삼청관(三清官)과 광한전(廣寒殿)을 뜻하며, 춘향이 머무르는 남원의 한 樓名이며 道令이 머무르는 서울의 한 동명(洞名)이라고 하였다.(설성경, 「춘향전의 계통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0, pp.116-167./김용범, 「조선조 소설의 서사공간 연구」, 『한국학논집』 제5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4, p.134, 재인용).

19) 단오는 다양한 유래설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굴원설이다. 굴원설은 중국 초나라 회왕 때 굴원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하여 먹과 수리는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날인 5월 5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다. 해마다 굴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단오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설이다.

일기로 호남의 먹락수에서 투신자살한 인물이다.²⁰⁾ 굴원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굴원 고사는 단오의 유래 중 충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즉 <춘향전>에 나타난 단오는 굴원의 충절을 단오에 빗대어 만남 공간에서 춘향의 절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희원 공간에서 나타난 ‘오월 오일 갑자’일이 춘향과 몽룡이 만나는 단옷날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요컨대 결연 공간은 춘향과 몽룡이 만나 두 남녀의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자, 춘향이 절개를 지킬 인연을 만나는 공간으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는 공간적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애정공간-사건 전환의 기능

춘향과 몽룡이 부부의 인연을 맺는 공간은 춘향의 집, 즉 가옥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가옥 공간은 춘향과 몽룡이 부부로 연을 맺는 공간인 동시에 이별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사랑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애정 공간이다. 두 사람이 첫날밤을 보내는 춘향의 방은 유명한 명필과 이태백의 그림, 엄자룡의 그림 등 고사인물도나 고소설도로 장식되어 있다. 여염집 여인의 방 못지않은 춘향 방의 풍경은 춘향의 품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춘향과 몽룡이 부부의 연을 맺는 공간의 품위를 더하는 기능으로 활용된다.

춘향과 도련임과 마조 안저 노와쓰니 그 이리 엇지 되것난야 사양을 바드면서
삼각산 제일봉 봉학 안자 춤추난 듯 두 활기를 예구부시 들고 춘향의 섬섬옥수
바드드시 검쳐잡고 으복을 공교하게 벽기난디²¹⁾

20) 이명련, 「한·중 세시풍속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6, pp.50-51.

21) 김진영 외, 앞의 책, p.322.

춘향이가 침금 속으로 달여든다 도련임 왈각조차 들어 누어 저고리를 벽겨니
여 도련임 옷과 모도 한티다 돌돌 뭉쳐 한 편 구석의 던져두고 두리 안고 마조
누워스니 그디로 잘 이가 있나 골십닐 제 삼승이불 춤을 추고...22)

조선시대 유교사회에서 남녀의 사랑 행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옥 공간에서 춘향과 몽룡이 첫날밤을 보내는 사랑가 대목은 유교사회에서 자유롭게 표출되지 못했던 인간의 본능과 성적인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춘향전>은 제도에 얽매어 표현하지 못한 인간의 감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은 같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춘향과 몽룡의 이별의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춘향전>의 가옥 공간은 사랑의 감정이 극대화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별의 감정도 극대화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²³⁾ 몽룡은 부친이 남원 부사의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가기로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춘향은 슬픈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이성을 잃은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옥 공간은 사랑의 감정도 슬픔의 감정도 숨기지 않은 채 인간 본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공간이다.

두 남녀의 사랑과 이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옥 공간은 사건의 연속

22) 김진영 외, 앞의 책, pp.322-323.

23) 춘향이 이 말을 듯더니 고닥기 발연 변식이 되며 요두절목으 불그락 푸르락 눈을 간간조름하게 쓰고 눈썹이 꼭꼭하여지면서 코가 발심발심하며 이를 쏘도독 쏘도독 갈며 온 몸을 쑤신입 툇툇 하며 밍 뺨차난 듯히고 안편이 허허 이게 웬 말이오 왈각 췌여 달려들며 취미자락도 와드득 좌루욱 찌져 바리며 머리도 와드득 쥐어 쓰더 짹짹 비벼 도련임 압푸다 던지면서 무이시 엇저고 엇제요 이것도 쓸 뉘 업다 명경 체경 산호죽절을 두르쳐 방문 박그 탕탕 부뚫치며 발도 동동 굴너 손벽치고 도라안자 자탄가로 우난 마리 서방업난 춘향이가 세간사리 무엇하며 단장하여 뉘 눈의 괴일고 몸을 연으 팔자로다(김진영 외, 앞의 책, p.332).

적 공간이자 사건 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별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장면 전환의 기능과 함께 사건 전개의 본격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시련 공간-절개와 충절의 상징

춘향이 현실에서 기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공간, 절연 공간, 애정 공간에 이르기까지 고귀한 인물임을 드러내 왔다. 춘향의 고귀한 인물됨은 시련의 상황에서 절개를 지키려는 춘향의 행동과 인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춘향의 시련은 새로 부임해 오는 변사또와의 갈등에서 시작된다. 남원 부사로 부임하는 변사또는 한양에서부터 춘향의 미색을 듣고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기생 점고를 핑계로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는 명령을 내린다. 춘향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옥에 갇히게 된다. 춘향이 시련을 겪는 동헌 공간과 옥중 공간은 위기의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공간은 춘향의 절개와 부패한 관리의 행태가 대비되는 공간으로 유교 윤리의 이념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변사또가 한 고을의 책임자로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고 공명정대함을 보여야 하지만 실상은 절개를 지키려는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행동을 폄하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헌 공간이나 옥중 공간은 유교 윤리의 기강이 되는 기생의 절개가 오히려 관리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율배반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공간은 성리학의 질서에 위배 되는 부패한 관리와 절개를 지켜려는 기생이 대립하면서 사회 비판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기생이

라도 절개를 지키면 칭송받기 마땅하지만, 나라의 관리가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면 지탄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춘향이 시련을 겪는 동헌과 옥중 공간은 부패한 기득권의 행태가 기생의 절개나 충절보다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사회 비판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춘향전>의 또 다른 단편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잇썩춘향이 하 기가 막켜 천연히 안자 엇조오되 충효열여 상하 잇소 자상이
دت조시오 기성으로 말합시다 충효열여 업다흐니 낫낫치 알외리다 히서 기성
농선이는 동설영으 죽어 잇고 셔천 기성 아히로되 칠거학문 들어 잇고 진주
기성 논지는 우리 나라 충열노셔 충열문의 모셔 돛코 천추형사 하여 잇고 청주
기성 화월리난 삼청각의 올라 잇고 평양 기성 월선이도 충열문의 드러 잇고
안동 기성 일지홍은 싱열여문 지은 후의 정경가자 잇싸온니 기성 희폐 마옵소
셔²⁴⁾

기생은 신분상 천민이기 때문에 변사또의 입장에서 춘향의 절개는 여염 집 여인들의 절개와는 다르게 생각했을 것이다.²⁵⁾ 하지만 기생의 절개는 지아비를 섬기는 일편단심의 열(烈)을 넘어 충절로 이어지는 고귀한 것으로, 변사또와 같은 부패한 관리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논개나 월선은 기생의 신분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충절에 버금가는 절개를 실행에 옮긴다. 춘향은 변사또의 사리사욕이 기생이 지키려는 절개보다 못함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지키려는 절개가 승

24) 김진영 외, 앞의 책, p.348.

25) 너갓튼 창기빅게 수절이 무어시며 정절이 무어신다 구관은 전송하고 신관 사또 연접
하미 법전으 당연하고 사례오도 당당커든 고히한 말 너지 말아 너의 갓된 천기빅게
충열 이썩 왜 잇시랴(김진영 외, 앞의 책, p.348).

고한 것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시련 공간은 작품의 초반부에서 춘향의 고귀함을 공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 이유를 해명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회원 공간에서 가옥 공간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으로 제시되어왔던 춘향의 고귀함이 절개로 승화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춘향의 절개는 꿈속 인물에 의해 더 칭송받기에 이른다.

비몽사몽간의 호접이 장주되고 장주가 호접되야 세우갓치 나문 혼빚 바람인 듯 구름인 듯 한 곳을 당도한이...(중략)...전면을 살펴보니 황금디자로 만고정 열항능지묘라 두려시 붓쳐거늘 심신이 황홀하야 비회터니 천연한 낭자 서이 나오난디 석송의 익첩 녹주 등능를 들고 진주 기싱 논지 평양 기싱 월선이라 춘향을 인도하야 니당으 드러가니 당상에 빅의한 두 부인이 옥수를 드러 청하거늘 사양하되 진세간 천첩이 엇지 항능묘을 오르릿가 부인이 기특이 내거 지삼 청하거늘 사양치 못하야 올라가니 좌을 주위 안친 후의 네가 춘향인다 기특하도다²⁶⁾

춘향의 꿈속에 나오는 인물은 녹주를 비롯하여 논개와 월선 아황과 여영으로 이들은 절개와 충절을 지킨 인물이다.²⁷⁾ 꿈속 인물은 기생의 신분으로 오직 한 남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키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들로 춘향의 절개를 드높

26) 김진영 외, 앞의 책, pp.355-356.

27) 석송은 중국 역사상 가장 호사스러웠던 인물이며, 녹주는 석송의 애첩이다. 사마륜의 측근이었던 손수가 녹주의 미색을 탐해 녹주를 원하자 석송은 이를 거절한다. 이에 앙심을 품은 손수는 석송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를 보내고, 누각에서 잔치를 벌이던 석송이 체포되자 녹주는 절개를 지키기 위해 누각 아래로 몸을 던져 죽는다. 월선은 임진왜란 때 왜장의 첩이 되어 김응서와 계획해 적장인 고시니를 죽이고 자결한 인물이다. 논개 또한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자 왜장을 유인하여 남강에 빠져 산화한다. 월선과 논개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인물로 의기(義妓)로 추앙받고 있다.

이는 인물로 상징화된다. 무엇보다 논개와 월선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점에서 이들의 절개는 충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련 공간은 기생의 절개를 충절로 승화시키는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Ⅲ. 서사적 기능

<춘향전>의 공간을 크게 회원 공간, 결연 공간, 애정 공간, 시련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각의 공간에서는 한 생명의 탄생을 염원하는 부부의 소망, 두 청춘 남녀의 만남, 그리고 사랑과 이별, 한 여인의 시련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진다. 다음은 각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공간이 갖는 서사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천상신분과 절개를 통한 신분 상승의 의미부여

조선후기에 이르면 사회적으로 양인의 수가 부족하게 되자 양인을 증가시키려는 방법으로 노비종모법이 시행된다. 춘향의 모(母)인 월매가 기생 신분이었기에 춘향은 기생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춘향은 자신의 신분을 극복하기에 이른다. 조선시대는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춘향이 사대부 규수였다면 정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평범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다.²⁸⁾ 하지만 춘향이 어엿집 여인이 아닌 기생 신분이었기에 그녀의 절개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공로로 춘향은 정렬부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춘향전>에서는 그 역할을 공간이 담당하고 있다.

28) 정하영,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5, p.59.

<춘향전>의 초반부는 연속적으로 공간을 통해 춘향이 고귀한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의도는 춘향이 기생 신분에서 정렬부인에 이르는 신분 상승에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영웅소설이 앞으로 태어날 인물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해 태몽을 통해 인물의 비범함을 제시하고 있다면, <춘향전>은 월매의 태몽에 앞서 치성을 드리러 가는 여정의 공간을 천상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활용은 앞으로 태어날 인물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춘향과 몽룡이 결연하는 가옥 공간에서는 춘향이 여염집 여인에 뒤지지 않는 교양과 품위를 갖춘 여인임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춘향의 방을 기생의 이미지가 아닌 정숙한 여인의 방으로 묘사하고 있다.

방중을 둘러보며 벽상을 살펴보니...(중략)...도선의 유명한 명필 글씨 붓쳐 있고 그 시이에 붓친 명화 다 후리쳐 던져두고 월선도란 기림 붓쳐쓰되 월선도 제목이 이럿던 거시였다 상제고거강절초의 군신 조회받던 기림 청연거사 이티 벽이 황학전 꾸러안져 황정경 익던 기림 벽옥누 지은 후의 자기 불너 올려 상양문 짓난 기림 칠월칠석 오작교의 건우 직여 만나난 기림 광한전 월명야의 도약하던 항아 기림 칭칭이 붓쳐쓰되 찰난하야 살난한지라 또 한 곳 바리보니 부춘산 엄자릉은 간의티후 마다하고 빙구로 버슬 삼고 원학으로 이웃삼아 양구를 펼쳐 입고 추동강 칠이탄으 낚슈줄 던진 경을 영역키 기려 있다 방가위지선 경이라 군자호귀 놀디로다²⁹⁾

인용문을 통해 보듯이 춘향의 방은 유명한 인물이 쓴 명필 글씨와 군신의 모습이 담긴 그림과 건우와 직녀가 만나는 장면, 추동강에서 낚시를 즐기는 평화로운 모습들이 담긴 그림들로 꾸며져 있다.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춘향의 방은 여염집 여인의 방에 뒤지지 않는다. 회원 공간에서 춘향의

29) 김진영 외, 앞의 책, pp.317-318.

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춘향의 천상신분과 고매함은 춘향이 양반인 몽룡과 부부의 연을 맺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공간 활용의 묘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활용은 기생 신분이 훗날 정렬부인의 자리에 오르는 데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요소로 작용한다.

<춘향전>은 춘향이 절개를 지켜 정렬부인이라는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이룩한 것처럼 치부될 수 있으나,³⁰⁾ 면밀히 살펴보면 회원 공간에서 옥중 공간에 이르기까지 춘향의 고귀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기생인 춘향이 정렬부인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린다. 무엇보다 춘향의 절개가 강하게 인식되면서 절개를 지킨 여인의 신분 상승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된다. 이러한 문학적 기법은 판소리계 소설이 갖는 특징 중 하나로³¹⁾ 현실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문학적으로나마 민중의식을 표출한 것이라 하겠다.

춘향은 기생 신분에서 일반 여성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인 정렬부인의 자리까지 오르는 수직적 신분 상승을 이룬다. 이러한 신분 상승은 신분제

30) 정하영은 춘향의 신분 상승의 요인으로 <춘향전>의 작가 군이 춘향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춘향을 기생에서 정렬부인까지 높여주었다는 점, 억눌리고 핍박받으며 살아야 했던 민중과 하천민이 춘향의 운명에 공감하며 춘향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며 하천민 자신들의 신분 이동에 대한 욕망의 표출로 작용하였다. 한편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인간의 평등사상이 싹트게 된 시대적 배경 상황과 신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춘향의 신분적 이동이 현실 가능한 점을 들었다(정하영,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5, p.73).

31) <심청전>의 경우 심청은 몰락한 양반의 봉사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대한 ‘효’를 다해 황후로 신분 상승한다. <심청전>이나 <춘향전>에서 판소리계 소설은 표면적으로 충, 효와 같은 유교적 윤리규범을 내세우고 있는 듯하지만 이면에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판소리계 소설에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은 모습은 현실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조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p.211).

가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양반과 평민이 다르지 않다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민중의식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신분 구조가 와해되는 상황에서 고난의 보상을 신분 상승의 욕구와 불의에 거역하고 탈계층을 지향하는³²⁾ 사회현상과 맞물려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절개와 부패의 이중적 대비를 통한 사회비판

<춘향전>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열녀(烈女)라는 당대의 윤리 도덕을 지향하면서도 부패한 관료사회를 고발하는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³³⁾ 절개를 지키려는 기생과 지아비를 둔 기생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지배층의 대립을 통해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인품을 갖춘 지도자를 갈망하는 민중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층으로 대표되는 변사또는 춘향에게 ‘너갓튼 창기빅게 수절이 무어시며 정절이 무어신다’³⁴⁾라며 춘향의 절개를 업신여긴다. 사회적으로 여인에게 지조와 절개를 강요하면서도 춘향이 ‘유부겁탈한난 거슨 죄 안이고 무어시오’³⁵⁾한 것처럼 지배계층은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

32) 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p.212.

33) 춘향전은 단일한 주제에서 벗어나 열녀의 교훈, 신분의 제약에서 벗어난 인간해방, 불의에 거역하고 탈계층을 지향하는 사회성의 추구 등 작품의 주제를 당시의 주도적 이념인 유교의 규범 속에서 파악하는가, 아니면 작품 자체의 이야기에 의미를 두고 파악하는가, 당시의 변화하는 시대 정신과 연관지어 파악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pp.212-213).

34) 김진영 외, 앞의 책, p.348.

35) 김진영 외, 앞의 책, p.349.

잇썩 남원부 할양이며 남녀노소 업시 묘와 구경할 제 좌우의 할양더리 모지구나 모지구나 우리 골 원임이 모지구나 저런 형벌리 웨 잇시며 저런 미질리 웨 잇슬가 집장사령놈 눈익켜 두워라 삼문 밧 나오민 급살을 주리라 보고 뉘난 사람이야 뉘가 안이 낙누하랴³⁶⁾

업것던 형방 퇴인 고지 드러 눈물 쏘고 미질하던 저 사령도 눈물 쏘고 도라셔며 사람의 자식은 못하건네 좌우의 구경하난 사람과 거형흐는 관속드리 눈물 쏘고 도라셔며 춘향이 미맞는 거동 사람 자식은 못 보것다 모지도다 모지도다 춘향 정절리 모지도다 출천열여로다 남녀노소 업시 서로 낙누하며 도라설 제³⁷⁾

변사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춘향의 절개를 꺾으려 할수록 백성들은 춘향을 향한 동정심이 더해지고 있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은 변사또의 생일날 관중을 향해 던지는 ‘금준미주는 천인혈리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축 누낙시밀누락이요 가성고쳐원성고라’³⁸⁾는 암행어사인 몽룡의 말에 집약되어 있다. 암행어사의 시각에서 본 백성들의 삶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근대로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배계층의 부정부패가 성리학 적 질서와 충돌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이었다.

<춘향전>은 춘향의 시련을 통해 백성의 고단한 삶을 드러내는 가운데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내 몸을 먼저 깨끗하게 닦고 남을 다스리는³⁹⁾지도자, 즉 수기치인의 인성을 갖춘 지도자의 염원을 공간을 통해 담아내고 있다 하겠다.

36) 김진영 외, 앞의 책, p.350.

37) 김진영 외, 앞의 책, p.352.

38) 김진영 외, p.374.

39) 네이버 지식백과, Basic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3. 기생의 충절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춘향전>은 춘향의 절개, 신분 상승, 사회 비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어왔다. 그만큼 <춘향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주제의식이 달라질 수 있는 작품이다. <춘향전>의 다양한 주제의식을 함축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여성 인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있다. <춘향전>이 기생인 춘향에게 신분의 제약을 허물고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춘향은 현실에서는 기생의 신분이지만 탄생 이전부터 고귀한 인물로 형상화되며 품위를 갖춘 여염집 여인처럼 살아간다. 나아가 절개 있는 강인한 여인으로 변화되면서 부패한 관리에 맞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영웅적인 면모도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춘향은 정렬 부인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신분상승을 이룬다.

춘향의 인물 설정은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제도 속에서 신분을 과감히 허물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픈 당대 민중의 욕망⁴⁰⁾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생의 신분에게 온전한 인격을 부여하고 절개를 지킬만한 인물로 형상화한 데에는 여성에 대한 민중의식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춘향전>은 춘향의 절개를 통해 신분제 사회에서 불가능한 신분 상승에 대한 민중의 염원을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기생의 죽음을 충절로까지 승화시켰다.

<춘향전>은 춘향의 절개를 통해 사회에서 천대받는 기생을 새로운 인식의 대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⁴¹⁾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실제

40) 장순희,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韓國語文論叢』 제55집, 한국문화회, 2010.

41) 실제로 조선의 기생은 관청에 소속된 관기로 국가 공식 행사의 연예를 맡기기 위하여, 또 국내의 사신을 접대할 수 있도록, 변방 군사의 근무를 위해 두었으며 관기와 의 사통은 용인될 수 없었다(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p.366). 나라에서 정한 기생의 공식적인 역(役)에는 남성에 대한 성적 접대가 포함되어 있지

로 논개나 월선의 절개를 충절로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여성상을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논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한 기생이다. 논개의 죽음은 유교적 의리와 정렬로 칭송 받았으며 민족 정서를 대변한 행동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⁴²⁾ 월선 또한 조선시대 가장 낮은 신분에서 천대받으며 살았던 기생이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목숨을 과감히 바친 인물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기생의 숭고한 정신은 기생 신분인 춘향의 절개를 통해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춘향전>은 춘향의 절개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기생의 죽음을 숭고한 충절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볼 수 있다.

IV. 공간활용을 통해 본 문학사적 의의

조선후기 사회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신분제도의 붕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수직적인 신분 관계가 모호해지면서 기득권층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인간 본연에 대한 인식이 싹트면서 가부장제 안에서 억압받던 여성에 대한 인식도 변해가던 시기였다.⁴³⁾ <춘향전>은 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인 기생을 통해 억눌

않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던 기생이 권력자의 수청 요구를 받을 때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한편으로 일부 기생이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기생의 역에 성적 행위가 관행적으로 개입되기도 하였다(박영민, 「정의의 관점에서 기생의 삶을 이해하기」, 『고전문학연구』 제54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 p.166).

42) 박현주, 「논개:논개 순국 정신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p.28-29.

43) 신효경, 「판소리계소설의 기녀의 양상과 서사적 기능」, 『어문연구』 제93집, 어문연구학회, 2017, pp.93-121.

렸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과감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춘향전>은 인간의 숭고한 사랑을 절개로 승화시켜 유교 사회에서 강조해 온 연인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사회에서 천시받던 기생의 절개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탐관오리가 백성의 삶과 안위를 책임지지 않을 때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기생의 숭고한 정신을 타락한 관료의 행태와 비교하며 충절로 승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선과 논개의 충절이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것은 그녀들의 충절이 춘향이 드러내려는 정절보다 더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⁴⁴⁾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한 역할을 <춘향전>은 공간 활용을 통해 춘향의 절개는 물론 기생의 충절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는 근대이행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상황이었다. 이 시기는 인간에 대한 탐구와 평등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신분의 상하관계는 남아있었다. 춘향이 갖는 기생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몽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녀의 신분애 색다른 요소를 입힐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공간을 통한 춘향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춘향이 비록 기생 신분이었지만 절개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는 부패한 관리의 행태보다 고귀한 행위였으며, 나아가 충절을 보여 준 기생들의 희생을 값진 것으로 승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즉 <춘향전>의 공간은 인물이 갖는 신분보다는 인간은 누구나 고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활용되며 그 고귀함은 기생의 절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기생의 죽음을 숭고한 죽음으로까지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44) 지성호, 「“판소리 ‘춘향전’에 진주 기생 논개 등장”」, 『연합뉴스』, 2015.05.20.

궁극적으로 <춘향전>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관심받지 못했던 기생의 죽음을 충절로 승화시켜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로나 문학사적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춘향전>이 갖는 주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조선후기는 중세에서 근대진입기의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었던 만큼 신분제의 변화 속에 인간의 근본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다. 사회적으로 여전히 유교 이념이 강하게 남아있어 여성이 지녀야 할 정조나 절개 등 도덕적 이념들은 중시되고 있었다. <춘향전>은 여성이 지녀야 할 정조나 절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공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다른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사건은 각기 다른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향전>에 나타난 공간의 양상과 활용이다. <춘향전>은 사건의 이동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나타난다. 먼저 회원 공간은 고귀한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공간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한 예비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절연 공간은 단오라는 민속을 통해 절개를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사건 발단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애정 공간은 두 주인공의 사랑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연속성을 가지며 이별을 계기로 갈등으로 전환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시련 공간은 절개와 충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춘향의 절개와 부패한 기득권의 행태를 대립시켜 사회 비판적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기생의 절개를 충절로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둘째, <춘향전>의 서사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춘향전>은 공간을 통해 천민인 기생에게 천상의 신분과 고귀함을 부여하고 절개라는 윤리 도덕을 앞세워 기생이 정렬부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신분상승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나아가 불의한 지배층의 행태에 저항하는 민중의식을 대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후기가 근대를 지향하면서 신분구조가 와해되고 신분 상승의 욕구와 더불어 불의에 거역하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간활용을 통해 본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조망해보았다. <춘향전>은 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인 기생을 통해 가부장제 안에서 억눌렸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과감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상을 반영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되 부당한 것에 대해 항거할 수 있는 정신적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춘향전>은 인물이 갖는 신분보다는 인간은 누구나 고귀하다는 것을 공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기생의 절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기생의 죽음을 숭고한 충절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춘향전>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춘향전>은 근대이행기로 접어든 조선후기 과도기적 상황을 적절히 수렴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신분의 상하관계가 남아있었지만, 인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고 평등을 지향했던 시기로 <춘향전>도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공간 안에서 신분 상승이나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춘향전>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관심받지 못했던 기생에게 고귀한 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교 윤리라는 사회제도 안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춘향전>은 인간의 자유와 가치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일남, 『고전소설의 창작기법 연구』, 아세아 문화사, 2007.
- 김용범, 「조선조 소설의 서사공간 연구」, 『한국학논집』 제5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4, pp.127-161.
-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 김현화, 「고전소설 공간성의 문예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12.
- 박상란, 「21세기 <춘향전> 수용의 양상과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26집, 우리어문학회, 2006, pp.37-61.
- 박영민, 「정치의 관점에서 기생의 삶을 이해하기」, 『고전문학연구』 제54집, 한국고전학회, 2018, pp.155-184.
- 박현주, 「논개:논개 순국 정신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서보영, 「영화 <춘향전>의 <춘향전> 수용 양상과 이본으로서의 특징」, 『문학치료연구』 제45집, 문학치료학회, 2017, pp.79-106.
- 설성경, 「춘향전의 계통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0.
- 성아사, 「세책 <춘향전>과 <춘향전>의 공시적 비교연구」, 『열상고전연구』 제3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pp.361-388.
- 손동국, 「공간적 서사로서의 <열녀춘향수절가> 읽기」, 『한국고전연구』 제3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pp.247-274.
- 신동훈, 「<춘향전> 주제의식의 역사적 변모양상」, 『판소리연구』 제8집, 판소리학회, 1997.
- 신태수, 「고소설의 공간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28집, 한민족어문학회, 1995, pp.215-255.
- 신효경, 「판소리계소설의 기녀의 양상과 서사적 기능」, 『어문연구』 제93집, 어문연구학회, 2017, pp.93-121.
- 이결, 「<춘향전>과 <서상가>의 비교연구」, 『돈암어문학』 제30집, 돈암어문학회, 2016, pp.329-373.
- 이명련, 「한·중 세시풍속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6.
- 이상일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 이상현, 「〈춘향전〉 소설어의 재편과정과 번역:게일 〈춘향전〉 영역본(1917)출현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30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pp.375-417.
- 장순희,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한국문학논총』 제55집, 한국문학회, 2010, pp.193-230.
- 전상욱, 「〈춘향전〉 외연의 한 양상; 한문본 〈春香新說〉 및 일본어본 〈鷄林情話春香傳〉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3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1, pp.273-299.
-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 정유정, 「대중가요 음반 속 〈춘향전〉의 수용과 변개 양상」, 『국문학연구』 제34집, 국문학회, 2016, pp.97-114.
- 정하영,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5.
- 지성호, 「“판소리 ‘춘향전’에 진주 기생 논개 등장”」, 『연합뉴스』, 2015.05.20.
- 최재우, 「보조인물의 성격으로 본 ‘춘향전’ 이본 간의 특성 차이: 〈남원고사〉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3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1, pp.125-155.
- 현길언, 「운명적 공간과 선택적 공간」, 『한국언어문학』 제1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pp.321-350.

Abstract

Space utilization and narrative function in <Chunhyangjeon>

Shin, Hyo-kyung

Space, a crucial part for aesthetics of a novel, has a symbolic and aesthetic meaning and plays a role in creating meaning to one's life. <Chunhyangjeon> lifts woman's chastity and fidelity on the surface, and emphasizes human dignity and its value through space. Also, events engaged in a variety of spaces show different theme for each event. Paragraphs below describe the researched contents based on these points.

First, the aspects of space and its utilization shown in <Chunhyangjeon> was researched and discussed. <Chunhyangjeon> showed various spaces according to the shift of each event. 'Hee-won' was utilized as the preliminary space for preceding an event, while describing birth of a noble person. 'Gyul-yeon' was formed to symbolize fidelity through Korean folklore 'Dano', playing a functional role in opening another event. 'Ae-jung' has its continuity in having both love and parting of two main characters in the same space, and played a shifting role in propelling the proceeding event. 'Shi-ryeon' represented fidelity and loyalty with social criticism, and was utilized to symbolize fidelity of *Gisaeng* as loyalty.

Second, the narrative function of <Chunhyangjeon> was researched and discussed. <Chunhyangjeon> through space grants high class and nobility to *Gisaeng*, which is subject to the lowest class, and shows legitimacy for raising one's class. It furthermore puts morality called 'Yeol (烈)' ahead of unjust conducts of the ruling class, while speaking for the people's voice standing against a corrupt society.

Lastly, its significance on literary history was researched through space utilization. <Chunhyangjeon> through *Gisaeng* reflects a strong

woman figure, boldly presenting love which had been suppressed under patriarchy, and actualizing her firm will. It sublimates the death of *Gisaeng* into loyalty in the meantime, which could have been socially outcast and turned away, and enlightens true freedom and value of a human.

Key word: <Chunhyangjeon>, Nongae, Pansori novel, *Gisaeng*, fidelity, Dano

신효경

소속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0331shk@hanmail.net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0일 투고되어
2019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12월 12일 게재 확정됨.